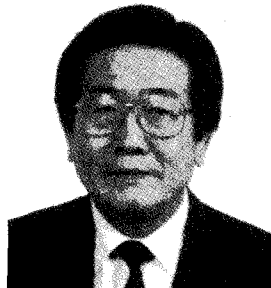




# 우리나라 원유 수급상황



이 흥 구

한국유가공협회 전무이사

## 1. 서언

지난해 말경 갑자기 불어닥친 IMF 한파는 우리 낙농 및 유가공업계에도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가져다주었다.

환율 폭등으로 사료 값이 40%이상 올랐고 외상으로 사던 것이 현금을 주고도 구입하기가 어려워졌으며 그 외 기자재, 약품, 유류값이 오르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오르는 등 하나같이 생산원가를 오르게 하는 요인들이 되었다. 거기에다가 젓소와 송아지 값이 폭락하여 30여년에 걸쳐 피땀 흘려 쌓아올린 낙농기반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채 붕괴될 위급수위에까지 다다랐다.

그런가하면 유가공업계는 원유와 제품가격이 올라야 하는데 게다가 국내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고 기업의 도산과 구조조정으로 실직자가 하루 만명 꼴로 늘어나며, 비수기까지 겹쳐 하루에 1,000톤 이상의 원유를 분유로 만들어 쌓아 놓아야하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또한 금융위기로 금리가 폭등하고 자금유통이 어려워져 채고 금융부담까지 겹쳐 일부 유업체가 부도로 화의신청에 들어갔는가 하면 일부 유업체에서는 원유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업계는 물론 낙농가에게까지 고통을 더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우리 나라가 낙농진흥계획을 정부의 주요시책에 포함하여 추진해 온 지난 30여년동안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70년대초 우유의 대장균 파동, 채고누중에 따른 수유 거부파동, 원유부족에 따른 과도한 집유선 쟁탈전, 70년대말 제2차 오일쇼크와 하절기 저온현상으로 인한 우유파동, 80년대에 들어서도 크고 작은 파동이 주기적으로 발생 하였으며 근년에는 유제품 수입 완전개방과 우유 위생논쟁으로 커다란 시련을 겪은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어려운 고비 마다 슬기롭게 극복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

국가의 부도 위기까지 몰고 온 IMF한파는 우리가 그 동안 겪어온 파동과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난국을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한 구조조정과 조사료 생산기반의 재정비, 국내 부존자원 활용의 극대화, 저능력우의 도태등 경영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생산자, 가공업자, 정부가 합심



하여 소비 홍보와 판촉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면 이번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금번 낙농육우 5월호에 원유체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특집을 내면서 "우리나라의 원유 수급상황"에 대한 원고 청탁을 받고 시기적절한 특집이라 사료되어 우유수급 상황과 당면한 몇가지 문제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 2. 우유 수급상황

국내 우유의 생산과 소비는 지난 30년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특히 소비에 있어서는 유가공기술의 향상과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초기에는 백색식유만으로 출발하여 이제는 강화우유, 기능성우유등을 생산하게 되었고 유아용 조제분유, 무당·가당원유, 아이스크림, 액상, 농후, 드링크발효유, 치즈에 이르기까지 품목이 다양화 되었다. 품질 또한 고급화되어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으며 수요면에 있어서도 그 동안 국가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짧은 기간에 괄목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낙농산업은 적어도 금세기 말까지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리라고 누구나 예상해 왔었다. 70년대에 25% 전후, 80년대에 15% 전후로 고도 성장해오던 우유소비 증가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5% 이하로 급속히 낮아졌다.

국내 원유생산도 93년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고 95년초 세계무역기구(WTO) 발족과 동시에 분유류를 위시한 주요 유가공품의 수입이 여타 농산물에 앞서 조기에 개방이 됨으로서 낙농가의 생산의욕이 저하되고 농촌노임의 급격한 상승과 정부의 환경오염원 단속강화, 규모의 영세성, 3D업종의 기피, 조사료확보난 등 열악한 낙농환경이 가속화되면서 95년 이후 정체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따라서 유제품의 자급률도 해를 거듭할 수록 낮아질 것이 예상된다.

그리고 국내 우유소비형태를 보면 봄과 가을이 성수기이고 겨울과 여름은 비수기이며 학교 우유급식도 주

**국가의 부도 위기까지 몰고 온 IMF한파는  
우리가 그 동안 겪어온 파동과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난국을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한 구조조정과 조사로 생산기반의 재정비,  
국내 부존자원 활용의 극대화,  
저능력우의 도태등 경영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생산자,  
가공업자, 정부가 합심하여  
소비 홍보와 판촉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나간다면  
이번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말과 공휴일, 방학동안에는 급식이 안됨으로서 원유 수급의 불균형이 심하다. 따라서 비수기와 주말, 방학동안에 남은 원유는 부득이 보존성이 강한 분유류(전지, 탈지분유)나 커드 또는 치즈류로 가공하여 보관하였다가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외식업체 등에 공급하여 수급을 맞추어 온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었다.

그러던 것이 95년초 주요 유가공제품의 수입개방에 맞추어 외국으로 부터 값이 저렴한 혼합분유류(일명 모조분유)가 대량으로 수입되면서 국내산 분유가 체화되는 등 우유수급의 불안현상이 나타나고 우려했던 대로 수입개방에 따른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국내 낙농산업이 위협을 받게되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96년도 산업 피해구제신청을 수용하였고 혼합분유에 대하여 '97년 3월부터 2001년 2월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수입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시행함으로써 국내 우유수급이 점차적으로 안정국면으로 접어드는 듯 하였다. 그러던 것이 '97년말 갑자기 불어닥친 IMF체제라고하는 거대한 한파는 국내 낙농, 유가공산업을 동사위기로 몰고왔다.

## 3. IMF이후 수급상황

IMF 한파는 우유수급에도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지난 1월말 전후에 몇몇 유가공업체에 기업에는

사형선고와 같은 부도라고하는 불명예를 안겨주었고 아직도 화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낙농가가 피땀 흘려 생산한 원유를 받아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IMF사태가 겨울철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발생하였고 각 학교의 겨울방학이 겹친데다가 '98년도에 들어서면서 많은 기업이 도산되고 구조조정 등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이 날이 갈수록 늘어남으로서 우유 수요는 먹구름이 드리우고 말았다. 그도 그럴 것이 '97년말에 60여만이던 실업자가 지난 4월초에는 150만명이 넘었고 최근에는 또 160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하니 이 불행한 사태가 언제 멈추어 감소추세로 돌아서려는지 암울할 따름이다.

예년의 우유소비 패턴을 보면 겨울철 비수기도 2월 하순에 풀리기 시작하여 3, 4, 5월이 봄철 성수기가 된다. 그런데 금년에는 1월에 일일평균 원유 910톤, 2월에 870톤, 3월에 720톤씩 남아 분유로 만들어 쌓놓고 있고 연중 가장 성수기인 4월 상순에도 매일 440톤의 원유가 남아돌아 분유를 만들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 연말에 6,000여톤이던 분유재고가 4월 상순에 14,000톤이 넘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20,000톤이 넘으리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생각해보자. 분유 14,000톤이면 원가로만 쳐도 800억원이 넘으며 20,000톤이면 1,200억원이 넘는다. 지금과 같은 고금리체제하에는 그 금리만도 얼마이며 보관에 따른 비용등 제비용을 따지면 천문학적인 수치이며 현재와 같이 금융위기 체제하에서 자금유통이 제

로 되는가. BIS니 뭐니해서 고금리를 내고도 자금유통은 하늘에 별따기 보다는 어렵다고들 한다. 그러나 유가공업체들도 흠뻑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낙농가에 원유대금을 제때제때 못주는것도 무리가 아니라 이해해주어야할 것이다.

IMF사태 이후 환율급등은 국내 배합사료 가격을 40%이상, 우유종이팩 가격은 60%이상 올라가게 하는 등 생산원가 부담에 큰 악영향을 미친 반면 95년 이후 수입시장이 완전 개방된 외국산 유제품을 못들어오게 하는데 한몫을 했다고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겠다.

그렇다고 하면 수입을 못한만큼 국내생산제품이 더 소비되지 않겠느냐고 반문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게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작금의 실태라 하겠다. 수입제품을 많이 사용하고있는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패스트푸드업계도 IMF한파를 겪기는 우유가공업체와 마찬가지로 사실이다. 이 업계에도 매기가 급속히 떨어져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업계가 부도가 났다는 보도를 접할 때마다 남의 일 같지 않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독불장군이 있을 수 없다고 하듯이 우리 낙농 및 유가공업이 발전하기 위하여는 각종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분야뿐 아니라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패스트푸드업계등 관련업계가 동반 발전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한다.

우리나라 원유생산 실적( 표1 )을 살펴보면 '96년도

표1) 연도별 우유수급상황

구 분	공 급				소 비	1 인 당 우유소비량
	이 월	생 산	수 입	계		
1980	21,968톤	452,327톤	-	474,295톤	411,809톤	10,802g
1985	39,375	1,005,460	1,914	1,047,100	990,549	23,827
1990	150,296	1,751,758	-	1,902,054	1,879,044	42,788
1991	23,010	1,740,995	171,000	1,935,005	1,869,205	43,201
1992	65,800	1,816,121	69,700	1,951,621	1,920,441	43,982
1993	31,180	1,857,873	139,710	2,028,763	1,983,673	45,032
1994	45,090	1,917,398	131,029	2,093,511	2,078,347	46,754
1995	15,170	1,998,445	195,876	2,209,491	2,143,841	47,800
1996	65,650	2,033,738	146,141	2,245,529	2,136,869	54,500
1997	108,660	1,984,023	444,495	2,537,178	2,394,391	52,062



203만여톤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부가 발표한 '98년도 예상은 '97년도 198만여톤 대비 2.2%가 낮은 194만여톤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금년 들어 국내 5대사(남양, 매일, 빙그레, 서울, 해태유업)의 원유집유 실적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1월이 3.5%, 2월이 5.3%, 3월이 5.7%, 4월 상승이 5.9% 씩이나 증가되고 있다.

이것은 IMF 한파로 우유소비가 급속도로 감소하여 분유재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는판에 무엇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리하여 최근의 젓소사육 동향을 살펴보니 '96년 3/4분기 이후 감소추세이던 젓소사육두수가 '98년 1/4분기에는 '97년말에 비해 3개월 동안에 무려 24,000두가 늘어난 것이다.

'97년말에 불어닥친 환란으로 배합사료 가격이 폭등하고 조사료마저 국내에서 자급이 안되고 많은 양이 비싼 달러를 주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하는 열악한 낙농환경속에서 속사정이야 있다하겠으나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낙농가의 사정을 몰라서 하는 말은 아니나 하도 답답해서 하는말이다.

젓소값이 개값만도 못한데다가 내다 팔려해도 사가는 사람도 없고 도매시장에 출하하려해도 도축장에 가서 3일 이상 계류시키다보면 그에 대한 비용이 들고해서 손에 잡히는 돈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 하니 낙농가인들 오죽하겠는가. 우리 다같이 값이 반성해볼 문제들이다.

#### 4. 우유 수급과제

우유수급이 원유가 생산되는 만큼 소비가 되거나 소비도 그 시기에 맞추어 알맞게 원유가 생산된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우리보다 몇 세기나 앞선 낙농선진국에서도 계획생산제를 시행한다느니 계절별 원유차등가격제, 용도별차등가격제, 수출보조금지불 등으로 골치를 앓고있는 것을 보면 우유수급을 균형있게 맞춘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문제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지난 30여년간은 그런대로 좋은 시기였다고 생각되며 이제부터가 진짜로 어려운 고비를 맞게되는 것 같다.

또한 우유수급의 어려운 점은 원유의 보존성이 없다는 것이다. 농산물 중에서도 채소류, 화훼류와 같이 신선도가 생명인 상품도 있지만 원유와 같이 자그마한 부주의만으로도 상품성을 완전 상실하는 품목은 없다고 본다.

이런저런 정황으로 보아 우유수급의 어려운 과제가 많겠으나 지면사정도 그렇고 해서 몇가지 사항만을 기술해보고자 한다.

첫번째 우리나라의 월별 원유생산 곡선을 살펴보면 11월하순경부터 생산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다음해 4월말까지 증가하다가 5월경부터는 하향곡선을 이루는 것이 연도별 절대물량과는 별도 통상적인 원유생산곡선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번식에 알맞은 계절이나 국내산 조사료의 안정적 공급시기등 몇가지 자연환경적 요인이 있을 것으로 이해되나 우유수급 측면에서 보면 겨울철 비수기에 원유생산이 증가됨으로서 많은량의 재고분유의 부담을 안게되고 재고금융비용까지 부담해야하는 유가공업계는 어려움이 많다. 유제품의 수입개방 이전에는 그나마 봄철 성수기에 판매가 되었으나 수입이 완전 개방된 상황에서는 제값받고 판매가 어려울 것이라는게 문제가 된다.

이 문제는 인위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분야이다. 생산 농가의 개선의지만 있다면 번식시기를 조절하여 우유 최고성수기와 개체별 최고생산시점을 맞추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일부 낙농선진국에서도 이를 제도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계절별 원유가격의 차등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두번째로 국내산 원유의 연도별 가공처리현황을 살펴보면 표2에서 보는 바와같이 70% 이상이 음용유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약 82%가 음용유용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낙농의 역사가 짧고 국민이 유제품에 대한 이해가 낮으며 수요가 단순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표2) 연도별 우유 처리가공 현황

연 도	집유량(톤)	처리가공현황	
		음용유용 (%)	가공용 (%)
1970	47,706	44.0	56.0
1975	160,338	72.8	27.2
1980	452,327	57.2	42.8
1985	1,005,811	71.0	29.0
1990	1,751,758	74.5	25.5
1991	1,740,995	74.9	25.1
1992	1,816,121	74.7	25.3
1993	1,857,873	73.6	26.4
1994	1,917,398	76.9	23.1
1995	1,998,445	74.6	25.4
1996	2,033,738	75.5	24.5
1997	1,984,023	81.9	18.1

낙농선진국가들은 자국내 생산원유의 50% 이상을 음용유가 아닌 유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제품의 다양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원유생산의 성·비수기를 제품으로 조절할 수도 있는 등 우유수급에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치즈같은 제품은

우유수급의 불균형을 조절하는데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본다. 치즈수요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고, 비수기 남은 원유로 치즈를 생산 보관하면 수요가 불안한 분유 재고를 가질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수입이 자유화된 지금은 표3에서 보는바와 같이 가격경쟁에서 너무도 취약하기 때문에 외국제품에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도 우유가 용도별 가격차등제 등 많은 연구가 있어야할 과제일 것이다.

세번째로 이제는 세계가 거대한 하나의 시장으로 바뀌었다. 유제품도 '96년 하반기부터 수입이 완전 개방되어 보호막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기는 길 밖엔 없다. 그러나 우리의 낙농산업 환경이 그렇치 못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유제품중에는 그나마 경쟁력을 따져보면 시유밖에 없다. 이도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아니라 제품 특성상 그 중에 물이 88%나 되고 보존성이 짧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았어도 어쩔수 없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고 보면 앞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시유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유는 계절적 수요격차가 심하고 학교우유급식사업도 주말과 공휴일, 그리고 방학기간에는 여차피 급식이 안되기 때문에 남아야하는 원유의 처리가 문제된다. 이때 수요의 보장도 없고 가격경쟁력도 취약한 분유를 만들어 보관해야 하는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 모색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본다.

## 5. 결론

우유수급에 있어 당장 급한 발등에 붙은 유제품 성수기인데도 하루하루 늘어만가는 분유체화를 어떻게 진정시키고 줄여나가야 하는가가 문제이다. 방법은 어떻

표3) 원유가격 경쟁력 비교

단위 : US \$ / 100kg

뉴질랜드	호 주	일 본	미 국	영 국	캐나다	네덜란드	한 국
17.23 (40.5%)	18.75 (44.1)	63.59 (149.5)	27.04 (63.6)	30.61 (72.0)	31.39 (73.8)	30.38 (71.4)	42.53 (100)

주: ( ) 내는 한국의 원유가격을 지수 100일 경우 상대국가의 대비율임



게 해서 소비를 하루속히 늘리느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연히 줄어들었어야 하는 원유생산이 늘어만 가는 것을 감산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이 모두가 말로는 쉬운 일이지만 실천에 옮기기에는 쉽지가 않다는 데 있다. 이를 해결하는 데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설사 자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전자의 경우 IMF 한 파로 하루에 일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늘어나는 마당에 쉽게 풀릴 것 같지가 않고 또한 제빵, 제과업체의 불황 뿐 아니라 심지어 관광업계가 위축되니까 호텔에 납품되는 버터까지도 안팔리는 실정이나 이만저만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후자의 경우 저능력우 도태에 따른 손실금의 일부를 보상해 준다던가, 젓소수매, 지육수매등을 실시할 경우 당장이라도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하겠다.

중장기적으로는 새로 출범한 국민정부가 자유경쟁에 의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병행 실천하겠다는 강

한 의지를 표방하고 모든 분야에서 전면개방을 지양하고 있는만큼 고회환시대가 가고 국내경제위기가 안정되면 외국으로부터 값싼 유제품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것은 누구도 탓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낙농인들도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미리미리 우리 스스로가 대비하는 길만이 현명한 길이요, 험준한 생존경쟁의 고개를 살아넘어갈 수 있는 슬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 낙농인들은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소비자는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선택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마음깊이 새기고 각자가 처해있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때 국내 낙농산업도 끊임없는 꾸준한 발전이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

(필자연락처 : 02-584-3631)

## 1998년도 낙농육우업 종합소득세 신고요령

### · 농가 부업적인 축산의 범위

가족별	규모	비고
젓소	30마리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소	30마리	

### · 신고 및 납부

가. '97년도 소득을 다음 연도인 '98년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확정신고서 기재 사항 중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할 때에는 6개월 이내에 한다.

#### 나. 신고서 제출 서류

- (1)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단일 소득용 별지 40호 서식 2) 2부

- (2) 소득공제사항명세서 2부
- (3) 간이소득금액계산서 (2) (별지 82호 서식 <2>) 2부
- (4) 주민등록등본 1부
- (5) 소득공제신청서 1부 (소득 공제 해당자)
- (6) 세액감면신청서 1부 (해당자만 제출)

#### 다. 불이행시의 제재

신고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납부하지 않을 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 (1) 소득 공제를 받지 못 하며
- (2) 세액 공제 및 세액 감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고
- (3)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